

주간에 News InChrist



주.안.에.교.회.뉴.스.레.터.



10
Oct. 2014
Vol.2 No.8

- 주안에라이프
- 선교지 리포트
- 주안예살 / 간증
- 칼럼 / 화보

주안예교회 InChrist Community Church ph. 818.363.5887 | 문서국 e-mail: icccnews123@gmail.com | web: in-christcc.org



제 2 기 주 안 에 힐 링 캠프
IC Healing Camp
 11월 9일(주일)~12일(수) / Big Bear Pinecrest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 6:33>

But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will be given to you as well.

■ 주안에 라이프

“수요일이 기다려져요” 배움의 즐거움 가득

주안에 라이프는 어르신들과 장년층이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경험하는 곳이 되어 가고 있다. 85명이 등록했고 평균 8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어르신들은 물론 감사진들을 포함 지원사격하는 스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실감하고 있다.

주안에 라이프는 지난 9월 17일 개강하여 오는 12월 17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 30분까지 진행된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주 안에서 영혼과 마음과 몸이 회복되고 변화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자 다짐하게 한다. 담당 사역자인 이케이시 목사는 주안에 라이프에 몰리는 시선에 기쁨을 감추지 않는다. 골프(김철환 집사), 배드민턴(이현욱 목사), 건강댄스(이명식 장로), 키보드(이현정 집사), 기타, 노래(오병순 집사), 컴퓨터(조경일 간사), 스마트폰 사용법(이석원 집사, 윤종화 장로), 수화(이지혜 집사), 미술(정소연 집사), 영어(김용 집사), 스트레칭(서정아 전도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은 어떠한 제한없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어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클래스에 들어갈 수 있게 배려하고 있다. 필수과목을 만들어 제한을 둔 다른 노인대학과의 차별화했다.

또한 케터링으로 식사를 준비하지 않고 주방을 담당하는 스텝들(김수연 집사, 김권희 집사, 채인배 권사, Helen Kim 권사, 오한복 집사, 이경희 집사, 안정순 집사, 권금자 권사, 노현숙 집사, 김현숙 집사, 이경희 집사, 안경숙 집사)의 손맛을 느낄 수 있는 홈 메이드 런치는 근동에서 가장 맛있는 점심이 제공되는 노인대학으로 입소문을 타고 더욱 많은 수강생을 이끄는 데 성공했다고 한다. 수고스럽고 번거로움



을 마다하지 않는 스텝의 어르신들을 섬기는 마음을 쉽게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수강생들이 식사를 위해 길게 줄을 서는 대신 미리 세팅된 테이블에 프로그램이 끝나는 대로 편히 자리잡고 식사를 시작하실 수 있게 만든 것 또한 어른에 대한 배려라 하겠다. 작은 것도 놓치지 않는 그 마음이야말로 진정 사랑이 아닐까. 카페에 온듯 흐르는 음악(커피 브레이크, 주석희 전도사)에 몸을 맡기고 마시는 차 한잔 역시 마음을 열고 각자의 삶을 나누기 쉬운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

힘든 이민생활에 지친 몸과 마음을 털어 놓을 곳을 찾지 못하고 깊은 외로움과 소외감, 상실감을 홀로 견디던 어르신들에게 일주일에 하루, 주안에 라이프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되고 하나님께 다가갈 새힘을 받는 진정한 힐링의 처소가 될 것이다.

앞으로 주안에 라이프를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를 따라 수강생, 감사진 그리고 숨어서 힘을 더하고 있는 스텝의 삶에 선한 영향력이 극대화되길 기대한다.

| 채은영 기자 |

■ 제 2기 주안에 힐링캠프

‘회복과 치유’ 삶을 바꾸는 터닝포인트

천국잔치(주 안에 힐링캠프)에 초대합니다. 제 2기 주안에 힐링캠프가 오는 11월 9일(주일)부터 12일(수)까지 빅베어 파인크레스트에서 진행됩니다.

1기 힐링캠프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치유와 위로, 천국을 체험한 성도들의 기쁨.

모두가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금번 2기 주안에 힐링캠프에 많은 성도님들이 Seekers로 참석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강력 추천합니다.

+ 날짜: 11월 9일(주일)~11일(수)
+ 장소: 빅베어 파인크레스트



■ 선교지 리포트

1,800평 터 위에 교회건물 기공예배... 기도해주세요

〈필리핀 김길현 선교사〉

주안에신문을 통해 주안에교회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저는 주안에교회로부터 파송받아 10월부터 필리핀에 들어와 선교사역을 하고 있는 김길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3월 필리핀 파이파이 리잘시 앙고노 산동네 판자촌에 땅을 구입하게 하였고 지금은 시청 건축과로부터 퍼밋을 받아 땅 바깥쪽으로 펜스를 치고 있으며 10월 22일 수요일에 주안에교회를 비롯한 한국의 후원교회 선교담당자들과 기공예배를 드린 후 현지인 교회 건축을 시작으로 고아원과 학교, 미혼모와 싱글맘 쉼터, MK 선교훈련 센터를 주안에교회 성도들을 비롯한 후원의 손길들과 함께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사진은 지난 3월에 구입한 1,800평의 땅입니다. 앞으로 주안에교회 온 성도들이 가슴에 품고 더 많은 관심과 사랑과 기도로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파송받아 올 때 주안에교회 영,유아부 선생님



오랜만에 만난 아이들과 함께 예배... 아래 사진은 사역지 주위 판자촌

들을 비롯해서 몇몇 분들이 개인적으로 선교후원금을 주셨었는데 그 헌금으로 12월까지 매주

300명분들의 점심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신문을 통해 전합니다.



■ 주안에삶 오리엔테이션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힘써 나타내자”

밸리채플에서는 9월 27일 오후 4시 1호실에서 50여명의 등록자들을 위한 3기 주삶과정의 오리엔테이션이 밸리채플 1호실에서 열렸다. 이성우 전도사의 인도로 찬양에 이어 통성기도, 박희성 집사의 대표기도가 있었다.

밸리채플은 이번에 단계별로 6주과정 11개 클래스가 개설되어 진행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현욱 목사는 딤편 4:6-11절을 본문으로 ‘주 삶에 참여하는 자세’ 라는 메시지를 통해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며, 명령되고 허탄한 데서 떠나 거룩함과 경건을 연습하는 주삶이 될 것을 권면했다.



이어 이정미 집사의 구체적인 프로그램 진행과정과 수칙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다. 앞서 9월 21일에는 세리토스채플에서 제 5기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었는데 구승환 집사의 대표 기도예 이어 박정환 목사가 고린도전서

11:1절을 본문으로 “나를 본 받으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신앙훈련은 영적전쟁터에서 몸이 습관화된 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몸소 보여주며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말씀을 삶속으로 가져오는 게 쉽지 않기에 훈련을 통하여 우리의 삶속에서 전수되어 지게 하므로 비로소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전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국민 전도사가 리더들 소개와 훈련생들 배치를 마친 후 앞으로 6주일간 서로에게 가족이 될 형제자매들과의 훈훈하고 귀한 만남이 비로소 시작 되는 각자의 방으로 향했다.

| 애나 김 기자 |

■ 한어청년부 수련회



“사랑하는 마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저희 코람데오 청년부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주제로 1박 2일 수련회에 다녀왔습니다.

수련회가 결정된 후 저희는 목, 금 영성예배 후에 수련회를 위한 기도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매주 기도모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수련회를 향한 뜨거운 마음을 주셨고 수련회를 통해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도 부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부푼 마음을 가득 안고 즐겁게 수련회 장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수련회 장소로 가는 길은 쉽지않은 암흑이었습니다. 긴 프리웨이를 지나 굽이굽이 산속으로 끝없이 달렸는데 해가 이미 저버린 밤이어서 잘 보이지가 않아 여기저기 길을 헤매다 겨우겨우 수양관에 도착했습니다.

힘들게 도착한 수양관에 들어서자마자 감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멋진 야경으로 둘러싸인 쾌적한 환경의 수양관은 힘들게 도착한 마음을 힐링하는 듯한 기분이 들게 했고, 문득 마음 안에 고난의 시간이 있어야만 감사와 축복의 시간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가 도착한 후 예배와 함께 수련회가 시작되었고 첫 예배부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강하

게 느껴졌습니다. 세리토스와 벨리 성격이 다른 두 채플의 연합이지만 각 프로그램들을 통해 우리는 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수련회 동안 정해진 룰 한가지가 있었는데 서로의 의견들이 분분할 때 뭔가 곤란한 상황일 때 서로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별게 아닌 것 같았지만 농담처럼 웃으며 하던 그 말은 서로를 더 사랑의 자리로 이끌어 갔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는 정확하고 강렬했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어디에서부터 온 사람인지 정체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조건 없는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다 그 동안의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저의 마음의 자리를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예배 때 감사 목사님께서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환히 웃고 있는 한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의 부모님은 선교사였고 그 선교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그 자매는 부모님이 죽임을 당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사랑이 가득한 얼굴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매의 이야기는 저에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라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라야 내가 너에게 말하는 사랑은 주위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닌 내 부모를 죽인 사람 까지도 사랑하고 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사랑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흘러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2014년 한 해 동안 계속적으로 사랑하라는 기도제목을 주셔서 그것을 위해 일년 동안 끊임없이 기도하며 많이 노력해 왔다고 생각했던 저의 교만함과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고 미숙한 저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수련회 프로그램 중 가장 핫 했던 순서가 있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조별로 했던 코갯텔(코람데오 갯 텔런트)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4개의 조가 각자 정해진 시간 안에 오디션을 준비하여 발표하는 조별 장기자랑의 개념이었습니다. 코갯텔을 준비하며 서로 더 하나가 되어갔고 단순히 재미라고만 생각했는데 각 조가 나와서 발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감동을 부여주셨습니다.

기도로 준비했던 수련회의 모든 프로그램 하나 하나에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가 닿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의 씨앗을 심고 내려올 수 있었던 행복한 1박 2일이었습니다.

코람데오 청년부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하심에 감사하고 모두가 안전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 안에 수련회를 마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거운 열정으로 말씀을 전해주시는 감사 목사님과, 밤낮 없이 뛰어주신 전도사님, 기도과 많은 것들로 후원해주시는 부장 집사님, 매끼마다 호텔 뷔페보다 더 맛있는 식사를 손수 준비해주시는 간사님들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임아라 자매

저희 부모님은 8년째 중국에서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 부모님이 계시는 지역은 그렇게 위험한 곳이 아닌데도 그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크게 다가왔습니다. 만약 나라면 내 부모를 죽인 사람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는데 바로 ‘하나님 전 못해요’

■ 세리토스 8교구 1구역

사랑의 식탁, 은혜 넘치는 공부, 눈물의 증보기도

8-1구역이 10월 19일 주일 구역장이신 황동성, 은숙 집사님 덕에서 구역예배를 드렸습니다.

구역장님 부부, 김광휘 집사님과 김경원 권사님 부부, 김명숙 전도사님, 에스더리 권사님, 조만수, 조수립 집사님 부부, 그리고 조성운, 근희 집사 부부 이렇게 모두 10분이 함께 모였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역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먹어야 되는가 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마디로 진수성찬이었습니다. 황은숙 집사님이 지난 달부터 구역예배 광고를 하시더니 아야 그때부터 준비하셨나 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먹어 본 콩나물 비빔밥,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요리 솜씨가 빼어나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이렇게까지 맛있을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식사 중에는 온 집이 쥐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콩나물밥에 흘린 사람들처럼 모두들 정신없이 코를 박고 먹었습니다. 저도 코로 먹었는지 귀로 먹었는지 모르게 먹었으니까요.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르는 맛이었습니다.

황은숙 집사님! 그런데 콩나물밥 하나면 됐지 거기다 무슨 반찬을 그렇게 또 준비하셨습니까? 돼지고기 들어간 김치볶음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지 아신 거죠? 콩나물밥 맛 떨어질까봐 김치볶음은 손도 못 댔는데 얼마나 억울했는지 아세요? 후식으로 나온 튀김도 일품이었습니다. 배가 너무 불러 많이 먹지는 못했지만 오징어튀김과 감자튀김으로 맛있게 입가심했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생겼

습니다. 황은숙 집사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내 입이 고급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항상 말버릇처럼 질보다는 양을 주장을 했는데 집사님 때문에 제 음식에 대한 철학도 조금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걱정 아닌 걱정도 되네요. 누가 우리를 8-1구역으로 배정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감사합니다.

맛있는 식사로 행복해진 마음을 안고 식탁에 모여 공과 공부를 했습니다. 주제는 성경이었습니다. 황동성 집사님의 사랑 가득한 인도와 은혜 넘치는 진행으로 한 시간 가장 진행된 공부 시간 내내 사랑과 은혜가 넘쳤습니다. 선교지에서 있었던 기적 같은 간증이 있었습니다. 간증 시가 낭독될 때는 울음바다가 되었구요.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고 사는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고백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영적 지도자이신 최혁목사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는 놀라운 역사는 단연 공과 공부의 백미였습니다. 목사님, 어제 저녁 때 귀 많



이 간지러우셨죠? 모든 분들이 목사님도 안 계신데 그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셨습니다. 너무들 하나 같이 칭찬들을 세게 하시니까 한편으로는 조금은 걱정도 되지만 거기까지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좋은 것은 좋은 것이니까요. 은혜 받고 사랑 넘치고 생활에 활력소가 되는데 어쩔 수 없네요.

사랑과 은혜에 빠져 웃고 울다보니 시간이 많이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9시 반에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수술 받고 회복 중이신 김시원 집사님, 갑자기 간암으로 치료 받으시는 에스더 권사님 여동생이신 이효만 권사님, 김광휘 집사님과 김경원 권사님의 큰 딸로 중국에서 일하는 다이앤을 위해 모든 구역 식구들이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고 에스더리 권사님께서 마무리 기도해주셨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구역예배는 믿음 생활의 감초가 아니라 심장입니다. 구역예배 없는 신앙생활은 앙꼬 없는 찐빵입니다. 은혜보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찬양을 부르며 집으로 가는 아내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나는 모른 척 했습니다. 구역장님, 그리고 구역 식구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운 집사

■ 소그룹 모임을 위한 쿠킹 아이디어

맛과 영양이 풍부한 칠면조는 고단백, 저칼로리 육류로 분류되어 불포화 지방산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고지혈증이나 동맥경화증 예방에 좋은 식품이다. 지난 몇년 동안 뚜껑이나 호일을 씌우지 않고 구운, 씹고 촉촉한 칠면조구이가 가족들에게 상당한 호응을 얻어 여기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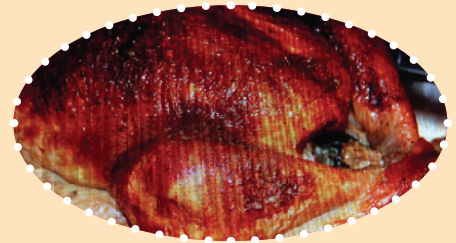
박창신 집사

1. 재료 칠면조, 소금, 후추가루, 버터, 식성에 따라 준비한 속(stuffing)

2. 만드는 법 1) 냉동된 칠면조는 3-4일동안 냉장실

추수감사절을 위한 칠.면.조.구.이

- 에서 녹인다.
- 2) 녹은 칠면조는 배속의 내장과 목등을 제거하고 흐르는 물에 씻은 후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한다.
- 3) 오븐은 화씨 325도로 예열하며 판은 오븐 맨 아래쪽에 둔다.
- 4) 녹인 버터 3큰술, 소금과 후추가루를 섞어 붓으로 칠면조 껍질에 골고루 바른다.
- 5) 칠면조 배속에 준비한 속을 넣고 굵은실로 다리를 묶어준다.
- 6) 예열된 오븐에 뚜껑이나 호일을 씌우지 않은 (Open pan) 칠면조를 속살의 온도가 화씨 165도 될때까지 굽는다. 굽는 시간은 1파운드당 15



분 정도로 16파운드 경우 4시간 정도 소요된다.
7) 오븐에서 꺼낸 칠면조는 호일을 덮어 20-30분 실온에 두어 육즙이 손실되는 것을 막는다.

* 크랜베리 소스, 그레이비와 함께 상에 올린다.

* 찐고구마, 옥수수, 푸른콩, 옥수수빵과 잘 어울린다.

Memory of Mother

정미애 집사

어떤 슬픔,
모든 슬픔이 슬픈 것이 아니다.
슬픔이 기쁨과 감사가 되는 것도 있다.

어머님의 삶과 죽음이나에게는 그러하다.
많은 시간을 나누며 살지 못했어도
많은 부요를 주고 받지는 못했어도

어머니가 나를 위해 남기고 간 시간에는
사랑이 묻어 있고,
기쁨이 묻어 있고,
웃음이 묻어 있고,
넉넉함이 묻어 있고,
칭찬이 묻어 있고,
자신감으로 가득차 있다.

어떤 이별은
모든 이별은 아픈 것이 아니다.
사랑과 희망이 되는 것도 있다.

어머니가 남기고간 유품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소망으로 차 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소망으로 가득차 있다.
나에게 향한 사랑과 기도 그리고 희망으로 차 있다. 나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셨다.

어머니를 기억하는 것은 사랑과 희망이다.
웃으며 사셨고,
감사하며 사셨고,
사랑하며 사셨고,
섬기며 사셨고,
믿음으로 사셨다.

그래~
나도 더욱 믿음으로 살아야지,
사랑하며 살아야지,
섬기며 살아야지,
감사하며 살아야지,
기쁨으로 살아야지,
웃으며 살아야지,

그래서 천국에서 어머니를 만날 때 우리 둘이 같이 두배로 기뻐할 수 있겠지.
오늘도 힘찬 하루를 연다!~ 엄마와 함께 ...

육신의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6)

구두 속의 돌멩이

에스더 최 집사

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하고 있는 딸 아이가 해부학 실험에 폭 빠지더니 좋아하는 색상마저도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생명을 상징하는 빨간색이야말로 신이 내린 최고의 색이라며 특하면 한 밤 중에 전화를 걸어 시체를 파 해진 얘기만 늘어 놓습니다.

심장에서 출발한 피가 동맥을 거쳐 온 몸으로 퍼져 나간 뒤 다시 정맥을 통해 심장으로 돌아오는 질서는 그야말로 경이로움 그 자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팔과 다리의 살을 뒤집어보면 살 속은 놀랍게도 잘 뻗은 고속도로 같고 각 계의 신경 하나 하나가 온 몸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면 잔잔한 근육들이 팀 워크를 이뤄 동작 하나를 만들어 낸답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신경이 두 개인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꼭 있어야 할 신경이 아예 없는 사람도 있다고 말해주는 딸 아이는 이빨은 있는데 입술이 없는 시체가 가장 무섭게 보인다는 귀뽀까지 해 줍니다.

얼마 전 식도를 해부했던 할머니 손톱에는 예쁜 핑크 색 매니큐어까지 칠해져 있어 너무 귀여웠다며 숨구멍과 식도의 정확한 움직임을 들여다 보면 인체의 신비함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흥분해 합니다. 그리고 숨을 멈추고 누워 있는 사람이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어떤 종류의 일을 했으며 또 평상시 죽을 준비는 하고 살았을까? 하는 염려와 궁금증으로 심각해 하곤 합니다.

나는 이런 딸이 솔직히 버겁다 못해 부담스럽습니다. 작은 벌레만 봐도 무섭다고 도망치며 주사 바늘 앞에선 바들바들 떨던 아이가 이토록 대범해진 배경에는 흑으로 사람을 빚어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하나님께 주과수를 정확히 고정 시키고 난 이후입니다. 한번 맞춰진 사이클은 강력한 파워로 분출되어 모든 일에 자신감으로 대응하는 용기를 가

졌습니다. 그런 에너지 넘치는 딸아이와 현실을 직시하는 나의 생각이 대립이 되어 우린 종종 의견 차이에서 오는 갈등으로 다툰이 잦았습니다.

이번 추수 감사절만해도 그렇습니다. 방과 후엔 내내 병원에서 인턴수업을 하고 주말엔 아르바이트로 눈코 뜰새 없이 고단하게 살면서도 딸은 또 멕시코로 의료선교를 떠나겠다는 겁니다. 금 쪽 같은 이 휴가에 말입니다. 오랜만에 딸과 오붓한 시간을 즐기고 싶었던 나는 그 험난한 고생의 길을 자처하는 아이가 도대체 마땅치 않았습다. 이번 연휴에는 오랜만에 가까운 이웃들을 초대해 터키요리도 나눠 먹으며 밀려 있는 드라마도 보고 또 멋진 1번 도로의 헬프폰 베이 바닷가도 드라이브할 계획을 세워 놓았건만 고집 센 딸 아이는 배낭을 둘러 메고 씩씩하게 집을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척박한 땅 그 곳을 향하여 ...

여전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보다 많은 관심이 집중 되어 있는 나와는 달리 가난한 이들과 더불어 나눔을 실천하려는 딸과의 전쟁에서 나는 어느 분이 말한 구두 속의 돌멩이를 떠 올립니다. 내가 믿는 신은 경우에 따라 세상과 타협 하며 살아가는 구두 속의 돌멩이지만 딸 아이가 믿는 신은 오직 일편단심 믿 들레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구두 속의 돌멩이 믿음으로 어정쩡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반면 딸 아이는 반석 같은 믿음 하나로 이 세상을 거뜬하게 잘도 헤쳐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이 멀어져 가고 있는 딸의 뒤 모습을 향해 나는 혼잣말로 웅얼거립니다.

“애야, 그래도 밥은 꼭 챙겨 먹어야 해”
그 분을 위해서라면 죽음마저도 기쁨으로 올인 하고자 하는 딸 아이의 마음가짐이 못내 부러워 나는 아이가 남기고 간 발자국을 따라 조심스레 걸어가 봅니다.

우리말 한글 (10월 9일, 한글의 날에)

이정은 목사

팔도강산 열이 담겨
숨쉬는 글

자음 모음이 만나는
조국의 입 기운

The soul of our nation
Breathing word

Country-side dancing
festival
Ga'ang-Ga'ang Suwolae

맵시 있는 아리랑
민족의 씨앗

길이길이 전해지는
고운 글,
우리말 한글

Prestigious ARIRANG
The seed of Korean

Constant combines with
vowel

방방곡곡에 자라나는
색동어린 글

Growing from all over the
world

Motherland influence

깊신 신고 장구춤 추는
강상수월래

As a rainbow colored
word

Forever and ever to keep
Lovely word,
Our language, HANGUL

하나님 임재, 살아있는 말씀 '주안에 주일예배'



■ 주삼 3권을 마치고...

“공부가 아닌 훈련, 하나님께 조금씩 가까이”

주안에교회가 설립되고 처음 풍요로운 삶 교육을 시작한다는 소식을 접한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때의 제 마음속에 그 교육을 통하여 현재의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나 하나님에 대한 감증을 해소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다가가는 통로로 생각한 것입니다.

성경책을 제대로 한번 본적도 없을 뿐더러 신앙에 문외한인 제 자신도 교육을 받고 공부를 하면 변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오리엔테이션에서 숙제로 인하여 살짝 겁을 먹긴 하였지만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도움 속에 무사히 시작하게 되었고 풍요로운 삶은 공부라기 보다는 훈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주, 두 주, 배움을 통하여 기초적인 신앙 생활의 기본도 모르고 있던 제 자신이 한심하면서도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운대로 착실히 한 주일을 훈련하는 삶을 살려 노력하였습니다. 매주 다시 멤버들이 모여 자신이 체험한 일들을 간증하며, 또 회개하며 다른 멤버의 삶까지도 간접체험 함으로써 더욱 더 하나님과 가까워 지는 기분 좋은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1권이 끝나고 2권이 시작할 때에는 당연하게 참여하게 되었고 제 삶의 방향이 말씀을 향해 조금씩 가까워 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 자신에 변화가 일어난 거죠.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었고 기쁜 마음으로 새벽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성경을 읽는 것을 빼먹지 않겠다는 결심을 조심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완독하겠다고 하나님과 약속도 하게되었습니다. 해가 바뀌어 하나님께서 마치 저를 위해 준비해주시던 양, 통독 과정인 주안에 말씀 1기로 등록하여서 그 어렵게만 여기던 성경을 쉽게 완독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풍요로운 삶 2권이 끝나고 바로 3

권이 시작하지 않아서 한 달, 두달 쉬다보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아닌 제 자신이 살기위해 아등바등 거리게 되었고 저의 삶은 점점 더 어려운 위기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의 목표, 하나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며 훈련하던 그때가 그리웠습니다. 제 자신이 혼자서 힘겨운 사단과의 싸움에 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같이 응원해주는 팀 멤버도 없었고 열성과 진정으로 이끌어 주시던 리더도 없었습니다. 금요일과 주일의 목사님 설교말씀에 성령충만함도 화요일쯤 되면 약발이 사라졌습니다. 새벽기도도 게을리하게 되고... 모든게 엉망이었죠..

그러던 제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던 계기가 바로 주안에 삶, 풍요로운 삶 3권 입니다. 그토록 바라던 3권이 시작하면서부터 다시 제 자신이 잘못하고 있던 것들을 알 수 있었고 다시 훈련을 하며 하나 하나 그것들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런걸까요? 우리의 삶속에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면 성령충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다 알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과 기도가 잘 안되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전 이런 주안에삶같은 시간을 통하여 제 자신이 계속 노력하도록 재촉해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조금 귀찮아할 때도 있지만 정말 그 순간 뿐입니다. 교육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정말 기쁘고 감사의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됩니다. 전 다음 단계가 또 기다려 집니다. 주위에서 저를 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이원근 집사 뭐 달라진 것 같지않아?” 했을 때 “글쎄 뭐 변했나? 잘 모르겠는데...”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정말 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구요. 또, 어떤 사람



이원근 집사

들은 “그래 이집사 많이 달라졌지! 지가 뭐라고... 정말 오버야 오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닙니다! 저 오버 안했습니다. 전 다만 우리 담임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빨간 구슬이 되어 보려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풍요로운 삶 3권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로 끝을 맺을까 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를 부르셔서 조금씩 아버지께 다가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많이 부족한 저지만 그래도 아버지,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 아버지께 더욱 더 사랑받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회개하며 믿음과 순종으로 완전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애쓰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의 물질에 마음 두지 않고 오로지 아버지의 영광을 우선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천상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고 그 향기로 인하여 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안에삶을 준비하신 목사님 비롯하여 사역자, 준비위원, 또, 우리를 예수님 같은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리더분들을 주목하여주시고 또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 땅의 기쁨으로는 느낄 수 없는 진정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주삼 1권을 시작하며...

살아온 삶 나누며 내 모습을 발견 감사가...

7주간의 과정으로 시작한 ‘풍요로운 삶’ 성경공부가 벌써 3과가 끝나 중반을 넘어섰다. 높고 푸른 하늘과 함께 깊이 머물러가는 가을과 함께 풍요로운 삶을 위한 성경공부도 알차게 다져지고 머물러가고 있다. 임훈 선교사님과 임화연 권사님 부부, 정세화 장로님과 정영주 권사님 부부, 조용성, 김혜영 집사님 부부, 조성운, 근희 집사 부부가 활동성 집사님의 풍요로운 사랑과 가을처럼 깊은 배려있는 진행으로 중반을 넘어 풍성한 은혜 가운데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 매주 토요일 5시부터 7시까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한 8명의 크리스찬 노객들이 말씀의 검을 들고 각자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고 느끼고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각자의 배경과 말투와 성격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존중심을 섞어 나누는데, 매 주일 감동적인 드라마가 재미있고 심도 있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하게 연출된다. 연속극보다 재미있고 영화보다 감동적이다.

그런데 시간이 토요일 오후 5시다보니 간단한 식사를 하고 시작한다. 그런데 첫 날부터 간단히 하자는 식사에 대한 약속이 진행자이신 활동성 집사님 때문에 깨졌다. 김밥에 튀김에 이것저것 잔뜩 싸가지고 오셔서 말씀 잔치뿐만 아니라 음식 잔치가 벌어졌다. 그 뒤에 당번을 맡으신 분들이 계속 푸짐하게 싸가지고 오셔서 매주 잔치가 벌어진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듯이 역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먹어야 일이 진행된다는 진리(?)를 다시금 알았다. 그러나 먹는 시간도 아까운 듯 황집사님이 재치로 활용하신다. 한 번은 식사를 하며 각자의 배우자에 대한 사랑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많은 깨달음을 주는 시간이었다. 아내는 당연히 옆에 있는 사람으로만 알았다. 그보다는 솔직히 나를 방해하고 잔소리하고 못살게 구는 원수(?)인 줄로만 알았다. 그런데 다른 분들의 이야기

를 듣고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아내의 장점을 이야기하는데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질 않았다. 모두가 비슷한 고백을 했지만 우리들은 배우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었다.

식사는 30분 만에 마치고 본격적인 성경공부가 시작된다. 그런데 풍요로운 삶을 위한 성경공부인데 성경공부가 풍요로움을 넘어 기쁨지고 풍성한 열매들로 넘쳐흐른다. 공부를 반박에 안했는데도 말이다. 임훈 선교사님과 임화연 권사님 부부는 샌디에고에서 올라오신다. 이 성경공부를 위해 두 시간 이전에 떠나신다



는데 항상 일찍이다. 준비도 제일 많이 해 오신다. 선교사님은 LAP-TOP 컴퓨터에 가득 준비해 오신다. 병원을 두 곳에서 운영하시고 교회에서는 영어 통역에 설교까지 하신다는 데 정말 대단한 분이다. 재미있는 것은 준비하신 내용도 씩씩하고 말씀도 씩씩하게 하시고 활력이 넘친다. 골목대장 같다. 임화연 권사님은 개인 노트에 깨알 같은 글씨로 뽀뽀이 적어 오신다. 배운 것도 많으시고 선교도 많이 하시고 평생 교회를 다니며 봉사도 많이 하셨는데 늘 눈물을 흘리시며 회개 또 회개시다. 정세화 장로님은 시골 아저씨 같다. 느린 말투에 지나온 삶을 잔잔히 들려주시는데 마음이 편안해지고

여유로워진다. 삶의 굴곡도 많으셨는데 이제는 모두 감사함으로 결론을 지으신다. 그 부인 이신 정영주 권사님. 우리 모두의 누님 같은 분이시다. 권사님의 말씀에는 정과 이해와 너그러움이 배어있다. 권사님 마음은 풍요로운 가을이다. 두 분이 살아오신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 모든 이민자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셨을 거다. 조용성 집사님과 김혜영 집사님 부부. 말이 제일 없으시다. 배우시려는 자세로, 진진한 자세로 많이 들으신다. 침묵은 금인가? 금 같이 소중한 분들이다. 낮은 자세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고 높여주시는 두 분의 소중한 마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실 분들이다. 내 아내 조근희 집사는 순수하다. 기도도 많이 한다. 성경도 많이 읽고 방송은 늘 복음 방송이다. 수줍고 말 주변이 별로 없어 많이 나누지는 못하지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아줌마다. 나는 아내 등쌀에, 아내 치마폭에 끌려 억지로 온 사람이라 부끄럽고 할 말이 별로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그래도 사랑하시나보다. 은혜는 내가 제일 많이 받고 있으니 말이다. 그리고 우리들의 선생님이신 활동성 집사님. 솔직히 처음에는 걱정이 많이 됐다.

나이도 그렇고 신앙생활의 연륜도 그렇고, 이 분이 과연 이 클래스를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있을까 하고 말이다. 그런데 뚜껑은 역시 열어봐야 안다. 대박이다. 산전수전 다 겪은 인생경험에, 뜨거운 사랑에, 깊은 이해심, 인내, 재치, 눈치까지 완벽한 리더이다.

이 풍요로운 가을에, 풍요로운 삶을 바라고, ‘풍요로운 삶’을, 풍요로운 리더의 인도로, 풍요로운 친구들과 같이, 풍요롭게 공부하도록 배려해 주신, 풍요로우신 하나님! 풍요로운 삶 잘 마치고 남은 인생을 풍요롭게 살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성운 집사 |



■ 성경 속의 여성들(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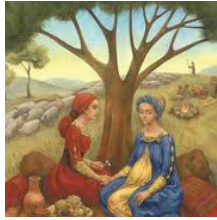
레아, 고통을 통해 성숙해 간 믿음의 여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역경을 만날 때 도망치거나 포기하지만 레아는 고통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며 그 삶의 성숙도를 높였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한 참된 여성리더다.

성경에 표현된 레아와 라헬을 보자면 밤을 새며 집을 지키는 강아지와 주인 옆을 맴돌며 교태를 부리는 고양이와 비슷하다. 인력이 부족하다고 표현된 레아는 시력이 안좋았거나 -남매인 리브가와 라반이 만이끼리, 둘째끼리 결혼시키기로 약속해 레아가 매일 울어 시력이 안좋아졌다는 이야기도 있다- 눈빛이 흐려 매력적이지 못하고 소심하며 겁많은 성격으로 매력적인 눈빛과 아름다운 몸매를 지닌 자신감 넘치는 라헬 옆에서 더욱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이런 상황은 순종적이고 겸손하며 온유한 성품을 강화시켰을 것이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였듯이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 14년을 봉사하게 되었다. 맘에도 없던 레아 때문에 14년동안 머슴살이했으니 레아가 더욱 미웠을 것이다. 또한 같은 남자를 섬겨야 하는 라헬 또한 언니 레아가 좋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사랑 받고 싶은 남편에게 미움받는 고통에 처한 레아는 라헬이 투기하며 야곱에게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라면 내가 죽겠노라”고 협박한 것과 달리 오로지 하나님께만 나아가 자신의 억울함과 고통을 호소했다.

레아가 아들에게 지어준 이름을 보면 그녀의 성숙해져가는 과정을 볼 수 있다. 첫째 르우벤은 “



보라 아들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괴로움을 돌아보아 아들을 낳았으니 남편이 이제 나를 사랑할 것이라는 소원이 담겨있다. 둘째 시므온은 “들으심”으로 기도응답의 간증이다. 셋째 레위는 “연합함, 애착”으로 완전수 3형제를 나았으니 남편과 연합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언제나 우리의 기대를 빗겨가듯이 남편의 마음은 늘 동생에게 있었다. 아들 여럿을 낳았어도 얻을 수 없었던 남편의 마음 때문에 절망하는 대신 레아는 더욱 하나님께 집중했고 넷째 아들을 낳자 “유다”라 이름하며 남편바라기를 멈추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긴 고통의 시간은 레아를 남편에게 외면받은 상처받은 여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고통을 이겨낸 믿음의 어머니로 만들었다. 결국 하나님은 레아의 넷째 “유다” 족속을 통해 예수님을 보내셨다.

큰아들 르우벤에 들에서 찾아 레아에게 가져다 준 함환채(임신 축진제)를 라헬에게 빼앗기고 얻은 기회로 낳은 아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집중하여 “하나님이 값을 주셨다(잇사갈)” 고 했고 하나님의 선물(스블론)이라고 인정한다. 참고로 라헬의 아들의 이름을 보자면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심(단), 경쟁하여 이김(납달리) 다시 더하기를 원함(요셉) 내 슬픔(베노니, 이를 야곱이

행운의 아들 베나민을 바꿈) 등으로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내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동생 라헬 앞에서 사랑받지 못한 아내 레아는 모욕감에 좌절하는 대신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 주목하며 믿음으로 성숙해갔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에서에게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이 선택한 라헬에게서 다시 장자권을 빼앗아 레아에게 주셨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 12지파 중 6지파를 레아를 통해 세우셨다. 야곱 또한 혈기왕성할 땐 눈이 가는데로 결정하고 귀에 즐거운 말을 따라 마음을 채웠으나 오랜동안 레아의 영적인 성숙함과 라헬의 인간적인 미숙함을 비교하게 되었을 것이다. 결국 노년에 레아를 첫째 부인으로 인정하여 가족묘에 안치시키고 자신도 그 옆에 눕기를 소원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의 고통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사단의 손에 우리를 내어준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 우리 삶을 더욱 순결하게 만들고 연약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강건하게 하여 하나님의 사람되어지길 원하기 때문이다. 고통 속에 신음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하소연하던 레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까지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문제와 상황을 만나든지 불평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보여야겠다. | 채은영 기자 |

주안에코우 비즈니스 소개

BDO | commercial wholesale lender
"The Bridge to Capital Markets"

Stella Son
Director

Main Office 4322 Wilshire Blvd. #301 Los Angeles, CA 90010	Downtown Office 1016 Towne Ave. #209-210 Los Angeles, CA 90021
---	---

Cell: 213.810.1230 Tel: 323.761.7505
Fax: 323.761.7507 stella.son@bdo.com
www.bdo.com Commercial Finance Lender License #6033429

NEWSTAR Realty & Inv. 뉴스타부동산
www.newstarrealty.com

Cindy Lee | Vice President
C) 818.621.8949
O) 818.881.2300 F) 818.495.2508
E) cindy.lee@newstarrealty.com
cindy.lee@icml.com
11259 Charworth St. Granada Hills, CA 91344
BREP: 01303681
MLS

Flower Factory / Uptown Nursery

과일나무
실내 식물
정원 나무 • 정원 공사

Tel: **213.382.9777 • 213.389.1388**
E-mail: oaksfastfoto@hanmail.net
294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COVERED CALIFORNIA Certified Insurance Agent
공인 에이전트

Cell: **213.713.9191**

Sang B. Kwon 권 상복
sangbkwon@gmail.com
CA Ins. Lic #0H59734

생명보험, 은퇴연금, 주택보험, 건강보험, 사업세보험, 자동차보험

■ 문학과 삶

이미 살았고 또 살아갈 나의 날들을 바라보며

《 많은 눈을 나는 보았다 》

류시화

눈물로 가득한 눈
꽃잎처럼 눈물을 뚝뚝 떨어는 눈
이루지 못한 욕망에 한숨짓는 눈
눈웃음짓는 눈
많은 눈을 나는 보았다

절망한 자의 눈
어린이의 눈
세상을 초월한 눈
그리고, 흠으로 채워진 죽은자의 눈을 나는 보았다

장님의 움직이지 않는 눈도 나는 보았다
짐승의 눈과 곤충의 눈과
내눈을 들여다보는 어떤 눈
어느 곳을 바라보는지 알 수 없는
미친차의 눈도 나는 보았다

사랑할 것이 있는 눈과
사랑을 찾아 헤메는 눈
어떤 눈은 이미 인생을 다 살았고
어떤 눈은 그렇지 않았다

모든 것,
모든 것을 나는 보았다

이 시에 표현된 그 수많은 눈들을 나 또한 다 보았다면 이젠 살만큼 산 걸까? 아니 연륜보다는 그 하나하나의 아픈 의미를 겪어 보았다면 난 지금 좁이면 인생을 관조할 수있는 자리에 와 있어야 하는데... 가을 안개가 짙게 내려앉은 창밖을 내다보며 사색에 잠긴다.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림자’는 다소 반어적인 류시화의 시집 중에서 이 시를 처음 대했을 때의 느낌은 일종의 충격이었다. 내 눈으로 연출했던 한 평생의 수많은 눈들이 적나라하게 그려져 있음이었고, 내 눈이 아니었다면 남의 눈속에서 언뜻 엿보았던 절망과 욕망, 한숨과 슬픔, 혹은 초월과 광기, 또 사랑과 싸늘함도 스쳐 지나 보지 않았던가... 실로 류시화답게 독특한 언어와 구조, 빛깔과 이미지로 소용돌이치며 지나간 세월을 아득한 현기증으로 반추하게 하는 시! 그 뿐 아니라 일상 언어들, 직조를 통해 어렵지않은 어휘들로 신비한 세계가 빚어지는, 그리고 파할 수 없이 직시해야 하는 삶이 거기에 가림없이 놓여있다.


그의 시의 미덕 중 하나가 낮익음 속에 감추어져있는 낯설음의 세계를 발견해내도록 유도하는 예리함이듯이 난 이 시 속에서 쉽사리 스쳐 지나가는 인생의 모든 구석구석을 발견된다. 그러다가 마침내는...’ 흠으로 채워진 죽은 자의 눈’이란 대목에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인생의 허무와 신비를 동시에 만난다. 영혼이 떠나는 순간, 아무 의미도 없는 하나의 물체로 남

아버리는, 결국 흠으로 돌아갈 이 여섯자 육체여! 무엇을 위해 그리도 울며 불며, 사랑하며 미워하며, 씹내며 아파하며, 싸우며 한숨지었던가. 결국은 별 것 아닌거라고, 죽을 듯 사랑을 앓던 나의 철없던 젊음에게, 그리고 이 나이 먹도록 아직도 여과되지 않은 감정과 욕심과 또 어거지 자존심같은 것들을 생명을 걸고 지키느라, 그 소용돌이를 지나는 모든 이들에게 읽어 주고 싶은 시.

“안녕! 내 혼의 무게로 쓰여진 이 시를 이해하려면 너 또한 내 혼의 무게로 잠 못이루어 야지...” 라는 시인의 충고로 부터 진정 자유로울 수가 없다.

던져졌기에 살아내야하는 우리의 삶은 그러기에 더더욱 도달해야 할 곳이 있어야 하는가 싶다. 나와 타인, 나와 이웃과의 경계를 늘 바라본다. 외부에 대한 바라봄이 결국 인간의 내부로 향하는 자연스런 흐름이듯이 죽음을 바라볼 때 삶이 회복되는 역설을 깨닫게 하는 내면의 암시...

“어떤 눈은 이미 인생을 다 살았고 어떤 눈은 그렇지 않았다...” 아직은 살아야할 날이 남아있는 우리의 성스런 책임 때문이라도 내 눈에 흠이 덮힐때 진정으로 뜨게되는 영혼의 눈을 지금부터 맑게 준비해 놓아야하겠다. 하늘처럼 맑은 눈, 하늘을 우러러볼 줄 아는 겸손한 눈, 초연을 살아내는 마음의 눈, 난 그런 눈을 갖고 싶다. | 서미숙 기자 |



한국장의사
HAN KOOK MORTUARY
FD 1134

Daniel Ahn
Counselor
Cerritos & Norwalk

12325 E. Rosecrans Ave.
Norwalk, CA 90650
daniel@HankookMortuary.com

Tel: 562.868.0788
Cell: 213.507.1313
Fax: 562.868.2808



이 사 라
Suk Lee
US 9636650
Franchise Consultant

3700Wilshire Blvd, #265 L.A.CA
Cell : 818.648.1224
E-mail : sarah27814@gmail.com



HISCO 히스코 자동차 그룹
일할 수 있는 사람, 일할 수 있는 가격


“주안에 교회 형제, 자매님들에게 필요하신 차를 저렴하게 드립니다.”

대표: 권문상 (Joshua Kwon)
Dealer Number: 96371

* 모든 차량 구입과 리스
 * 철저하고 숨김없이 알뜰드립니다
 * 뽐이시는 곳에 직접 내강해 드립니다
 * 일반승용차부터 큰 트럭까지 전차종 취급


 hiscoauto@gmail.com | Cell : 714-357-7070 | Phone : 310-530-7979

John Koo
General contractor
949 374 0311
jkoo89@hotmail.com



All Goodman Construction Co.
Sincere, Honest, Experience,
Knowledge, Trend, Sense

Addition, Remodeling, New const., Landscape
Repair, Maintenance, Any type of construction

Lic # 965466
Bond, Insured, Warranty

주안에 교우
비즈니스 소개

주/안/에/캘/린/더

목회부

- 11/2(주일) 구역모임 / DST종료
- 11/9(주일)~11(수) 제 2기 주안에 힐링캠프
- 11/16(주일) 추수감사주일
- 11/20(목) 리더모임 (세리토스채플)
- 11/21(금) 리더모임 (밸리채플)
- 11/23(주일) 주안예배/말씀 수료자 감사회
- 11/27(목)~29(토) 추수감사절 연휴 (연휴기간 새벽예배와 영성집회가 없습니다.)
- 11/30(주일) 제직훈련 (밸리/세리토스 채플)

한어청년부

- 11/1(토) 리더스컨퍼런스
- 11/30(주일) 코람데오 예배

<< 죽기 전에 더 늦기 전에 >>

- 내일을 위해 오늘의 행복을 양보하지 마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이 순간 행복해야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일입니다.
- 건강할 때 호스피스 병동에서 봉사하세요.**
건강할 때 한 번이라도 시간을 내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봉사하세요. 죽음을 배우는 지름길입니다. 죽어가는 노인은 곧 사라질 도서관과 같습니다. 그들을 도우면 그들은 작은 목소리로 삶의 비밀을 속삭여줄 것입니다.
- 나쁜 소식도 정확하게 알지.**
무슨 병에 걸렸는지,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치료 목표는 무엇인지, 진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급하고 거칠고 불같은 성격을 버려야 합니다. 성격은 인생의 과정뿐 아니라 마지막도 결정합니다.
- 마지막에 할 말을 지금 하세요.**
임종 순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면 남은 이들은 당신을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기억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은 마지막까지 아껴두지 말고 지금 하면 어떨까요? 이제 마디 말이면 삶의 모든 갈등이 사라진답니다.
- 죽음이 불행인 것처럼 대하지 마세요.**
병에 걸리는 것도, 주식이 폭락하는 것도,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나는 것도 모두 견디기 힘든 슬픔입니다. 죽음은 그중에서도 가장 슬픈 일이지만 그것을 불행으로 연결시키지는 마세요. 슬픔으로 눈이 멀지 않으면 내 슬픔을 통해 다른 사람의 슬픔을 볼 수 있는 포용력이 생깁니다. 슬픔이 찾아왔다고 해서 인생이 온통 먹구름으로

뒤덮이지는 않습니다.

6. 통증조절을 잘하는 주치의의 알아두세요.

병도 고통도 없는 죽음이 우리의 마지막이라면 좋겠지만, 누구나 그렇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때 찾아갈 수 있는 의사를 알아두세요.

7. 건강할 때 자신의 마지막을 상상해 보세요.

죽음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암이나 치매에 걸리지 않겠다는 바람도, 잠들 듯이 편안하게 죽고 싶다는 소망도,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습니다. 죽음의 상황을 바라기보다는 마지막 순간 가슴에 무엇을 담고 떠날지를 상상하세요. 그리고 바로 지금, 그 일을 하세요.

8. 마지막 순간까지도 즐길 수 있는 취미를 만드세요.

죽어갈 때 나를 즐겁게 할 수 있는 취미를 가지세요. 영화를 보는 것도, 음악을 듣는 것도 좋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 또 가족을 위해 절대자에게 기도를 하면서 보내는 시간도 의미가 있습니다.

9. 당신은 기도 당신의 재산은 남습니다.

한 환자가 자식들에게 재산을 나누어주었습니다. 딸은 그 다음부터 병원에 발걸음 끊었습니다. 자주 들러서 아버지를 돌봐주던 착한 딸이었는데, 병원에 오지 않는 오빠에 비해 자신의 몫이 초과하자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남은 사람들이 평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하는 마음을 담아 유언을 남기세요.

10. 마지막을 같이하는 웰딩 보호자를 만드세요.

아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마지막이 외롭지 않은 건 아닙니다. 헛된 만남보다는 단 한 사람의 진심과 만나야 죽음이 쓸쓸하지 않습니다.

800여 명의 죽음을 지켜본 호스피스 여의사 김여환

사업체 광고를 실어드립니다

성도님들의 사업에 도움을 드리고 교우 상호간 서로 돕기를 실천하자는 취지에서 사업체 광고란을 마련했습니다. 광고비는 6개월 단위 \$1500이며 광고수익은 선교 구제헌금으로 사용됩니다. 문의: (323) 810-9853, icccnews123@gmail.com

“주안에” 2014년 11월호 원고 모집

‘주안에’는 교우 모두가 참여하여 만드는 우리교회 뉴스레터입니다. 교구, 구역, 사역팀 소식을 비롯, 간증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많이 보내주세요.
이메일: icccnews123@gmail.com

발행처: 주안에교회 문서사역국

문서사역국 명단: 김경일, 조이 메기, 새라 리, 박창신, 서미숙, 서세건, 이지혜, 이현주, 조용대, 채은영 (기자)

안동윤, 브라이언 조 (사진) | 편집디자인: 김윤영



예배시간 및 교회 위치 안내

주일
예배

세리토스채플 / 오전 9:30, 11:30
밸리채플 / 오전 8:00, 9:45

영성
집회

목요영성집회 / 저녁 7:45 세리토스채플
금요영성집회 / 저녁 7:45 밸리채플

새벽
예배

밸리채플 / 새벽 5:30(월-금), 6:00(토)
세리토스채플 / 새벽 5:30 비전채플



밸리채플 Valley Chapel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세리토스채플 Cerritos Chapel 13808 Imperial Hwy, Santa Fe Springs, CA 90670

비전채플 Vision Chapel 12631 E. Imperial Hwy #F134, Santa Fe Springs, CA 90670